



고대 로마는 왜 강했나?



노윤래
칼럼니스트

-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
-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관
- 한국전력공사 영광원자력 본부장
- 한전원자력연료 사장
-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강사

고대 로마는 공화정이 성립된 BC 509년에서 서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가 폐위된 476년까지 무려 1000년을 이어온 대제국이였다. 병력이 강하고 영토가 넓은 나라를 강대국이라 한다면 로마는 이에 딱 맞는 제국으로 그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고 군대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000년을 유지한 로마가 전쟁을 수행한 기간은 적어도 600년 이상이 된다. 로마가 강대국으로 발전한 역사를 몇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단계는 국가 존립을 위한 전쟁 기간(BC 8세기~BC 4세기)으로 로마는 작은 도시국가(면적 900km²)로부터 출발해 끊임 없는 정복 전쟁에 임했다. 그 결과 BC 3세기에는 이탈리아반도를 점령하게 되었고 마침내 BC 31년에는 지중해를 장악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로마는 2차 포에니전쟁(BC 218~201)과 칸나이 전투(BC 216)에서 한니발에게 패해 한때는 어려운 시기를 맞기도 했으나 스키피오, 폼페이

우스, 카이사르,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등의 명장이 배출되어 영토를 확장해 나갔고 필리피 전투(BC 42)와 악티움해전(BC 31)의 승리로 지중해 지역의 패권을 잡고 세계제국을 건설하게 되었다.

로마군의 기본 장비와 무기는 투구, 갑옷, 방패, 검, 단도 등으로 그 무게가 30kg에 달했다. 이 정도의 무게를 걸머지고 자유자재로 동작하려면 강인한 체력이 요구되었다. 로마군의 초기 신장은 173cm 이상이었으며 제국의 확장으로 병력의 수가 늘어나 4세기 중반에는 165cm로 완화되었으나 이는 영양이 좋지 않았던 고대임을 생각하면 건장한 신장 조건이다. 징집대상(17~46세)의 건장한 남자가 병사로 입대하면 시민권이 주어졌고 매우 엄격한 훈련을 받았다. 기본훈련과 전투 훈련은 물론 시속 6~7km의 속보로 행군을 했다. 행군은 매일 3회로 보통 15km, 특별행군일 경우에는 30km로 강훈련이



었다. 전시의 야전 주둔지 시설을 위한 훈련으로 외형건설(외벽, 망루, 해자)과 막사(삼각형 텐트 모양)를 세우는 훈련도 했다.

1세기 후반, 적장이었던 유대인 요세푸스(Flavius Josephus)는 “로마군에게 훈련은 피를 흘리지 않는 전투였고, 전투는 피를 흘리는 훈련이다”라고 로마군의 장점이 계속되는 훈련에 있음을 극찬했다. 4세기 후반, 로마제국 전략가인 베게티우스(Flavius Vegetius)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한 이유를 찾는다면 군사훈련, 신체 단련, 전쟁 실습 외에 다른 이유는 없다”라는 논평을 했다.

로마군이 강한 이유로 훌륭한 전술과 정책을 내놓을 수 없다. BC 216년, 칸나이 전투에서 로마군은 밀집대형의 약점으로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에게 대패했다. 한니발의 중대 편제가 전술상 우수함을 알게 된 로마군은 그 후 중대 편제를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발판으로 전보다 유연성이 있는 대대 편제로 군 조직을 바꾸었다. 로마는 연이은 전쟁의 승리로 마케도니아, 스페인, 갈리아를 속주로 편입시킨 후에도 그 지역을 지키기 위한 병력이 필요했다. 병사를 투입할 지역이 넓어짐에 따라 병사의 복무기한을 넘기게 되었고 따라서 끊임없이 신병이 필요했다. BC 107년, 로마는 신병을 확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산이 없는 하층민을 지원병으로 충원하는 정책 전환으로 병력을 3배로 증가시킬 수 있었다. 2차 포에니전쟁 시기에 23~25개 군단이었으나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가 경쟁하던 시

기(BC 48~45)에는 45개 군단,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한 악티움해전에서는 60개 군단으로 증강되었다. 로마군의 강성은 우선 수적 우세에 있었다.

로마군은 개인의 기본무기를 병사들이 매입해야 했다. 따라서 적은 급여는 궁극적으로 전투에서의 승리로 적을 약탈한 전리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병사의 사기를 높이는 수단이 되었다. 한편 전리품은 병사들이 사령관에게 충성을 서약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상여금을 가장 후하게 지급한 사령관은 카이사르로 그는 병사 연봉의 26배를 최고로 지급했다. 옥타비아누스는 페르시아를 점령한 후 병사들에게 약탈을 허용했으나 로마의 초대 황제(아우구스투스)로 즉위한 후 정치적 안정이 유지되면서 상여금에 인색해졌다.

로마군에 대한 상벌은 매우 엄정했다. 혁혁한 전공으로 1급 병사에게는 금관과 부상 및 특진 이, 비교적 가벼운 벌에는 벌금, 강등, 불명예제대가, 무거운 벌로는 처형이 가해졌고 반란의 경우에는 『10명에 1명씩 처형하기』로 다스렸다. 복무기간은 20년이지만 5년을 예비군으로, 평생을 군인으로 사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건장한 신체조건에 끊임없는 훈련과 전쟁 연습으로 단련된 강인한 로마군에 대해 적장 한니발은 “이기면 자신감으로 덤비고, 지면 치욕을 씻으려고 달려드는 로마군과 평생 싸워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고민한 것은 결코 우연은 아니었다.

이렇게 1000년을 이어온 로마도 3세기에 접

어 들 면 서 제 국 의 평 화 는 끝 나 가 고 있 었 다. 라 인 과 다 뉴 브 강 으 로 물 러 드 는 게 르 만 족 이 늘 어 갔 고 프 랑 크 족, 알 레 마 니 족, 고 트 족, 사 르 마 티 아 족 등 은 비 옥 한 땅 과 좋 은 날 씨, 훌 륭 한 행 정 체 제 와 잘 정 비 된 도 로 가 갖 추 어 진 로 마 가 부 러 움 의 대 상 이 었 다. 한 편 오 랜 평 화 체 제 에 익 숙 해 진 로 마 군 은 훈 련 부 족 과 전 리 품 에 의 존 해 온 급 여 의 감 소 로 사 기 저 하 가 심 해 져 국 력 은 쇠퇴 의 길 을 걷 게 되 었 다. 마 침 내 476년 게 르 만 족 의 오 도 아 케 르 가 서 로 마 제 국 의 로 물 루 스 황 제 를 폐 위 한 것 은 상 징 적 인 사 건 에 불 과 했 다. 이 미 대 부 분 의

로마가 이민족의 수중에 있었기 때문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영원한 제국이나 패권 국가는 없었다. 절대권력은 절대로 망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고대 로마제국처럼 세계를 지배했던 패권 국가도 역사에서 사라졌다. 독재 국가와 독재 정권은 반드시 패망하는 것이 인류가 경험한 역사의 교훈이다. 그리고 영원히 존속한 것은 비록 강풍에 쓰러질지라도 결코 뿌리가 뽑히지 않는 풀처럼 끈질긴 삶을 이어온 민중이 남긴 찬란한 인류의 실존적 문명이다. **KIIF**